나해·제2292호
연중 제27주일
2024년 10월 6일

춘천주보

페테르 파울 루벤스
〈아담과 하와〉
1597년경, 캔버스에 오일,
루벤스의 집, 벨기에

목 차

02 말씀의 향기
혼인 유감

03 평신도 단상
나로부터 변화되어 공동체에 스며들다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27

05 열린 마당
성모님께 드리는 손편지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창세 2,18-24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2독서 히브 2,9-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음 마르 10,2-16 〈또는 10,2-12〉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발행인 김주영 · **편집** 문화홍보국 · **주소** (24338)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00 · **전화** 033)240-6012 · **팩스** 033)240-6013 · **이메일** ccjubo@gmail.com

김영태 시몬 신부
원통 본당 주임

혼인 유감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는 악처 크산티페가 있었다. 오랜 전승이 악처 덕분에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터이니."

결혼이 철학자를 탄생시킨다는 그의 말은 철학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고 철학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게 된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 묻는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인종과 문화가 다른 동양은 어떠했을까?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러한 배우자를 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칠거지악(七去之惡), 이러한 7가지 허물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가 배우자 때문에 가정법원을 찾는다. 이혼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오늘의 복음을 보면서 많은 이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천 년 후를 아시고 이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셨는가, 역시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해 버리고 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을 통해 철학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해결책은 세상의 해결책일 따름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세의 이혼장에 관해서만 말씀하신다. 모세가 이혼장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의 완고함 때문이고 그 때문에 규정이 생겨났노라고, 그러나 이러한 완고함을 뛰어넘는 혼인의 성사성이 있다. 혼인을 통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불가분의 존재(하느님의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로 재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의 복음은 혼인과 이혼으로 마무리되는가?

혼인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부부를 축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는 둘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의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의 혼인과 이혼으로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피조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떠날 수 있는가? 내 뜻과 부합하지 않는 그분을 버릴 수 있는가 질문하여야만 한다. 세상의 어떤 문서도 어떤 법률도 하느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혼인 잔치로, 하늘나라의 철학자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 초대의 응답은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다. 당신의 응답은 무엇인가?

인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사랑과 연민으로 지켜보며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눈빛을 진심으로 찾고 읽어내야 합니다.

평신도 단상

나로부터 변화되어 공동체에 스며들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햇빛이 차가워지던 지난겨울에 본당에서 한 자매님이 내게 던진 질문이다.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는 자매님의 질문에 당혹스러웠다. 단어도 어렵고 교구에서는 시노드 정신이라고 홍보는 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유튜브 강의를 듣고 교구에서 준비한 회의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시노달리타스는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 변화되고 공동체와 함께 가자는 대명제이다. 본당 내에서도 끼리끼리가 아닌 다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방점을 찍고 선한 진향으로 가는 것이다. 서로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형제자매를 만나 더 깊게 내면을 성장시키고 생각 너머 이치를 깨달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어느 수녀님의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 이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나로부터 변화하고 침묵을 지켜내자.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직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릴 때가 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한다.

성가에서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라는 구절처럼 천년도 백 년도 못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나이지만 지상에서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다듬어 보려고 한다. 첫걸음으로 우리들은 교회를 다른 인간 사회와 동등하게 보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본당 공동체에서 내가 아닌 함께라는 생각으로 배려와 사랑 넘치는 신앙생활로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걸음으로 미사 참석 전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보이면 먼저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교우들이 오고 싶은 성당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걸음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다문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주민들은 어느새 교회로 찾아온다. 이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배타적이고 무관심했던 과거를 반성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늦었지만 준비해야 한다. 관심으로 바꿔 나갈 때 하느님 나라가 이곳에 현존하는 것이다. 이주되어 온 이들을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한 발언과 경청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힘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튼튼하게 성장한다는 걸 배우게 된다. 우리는 사회인보다는 신앙인으로 내 주변에 시선을 돌릴 때이다.

나자렛 성 요셉 성당 성화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27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 – 총괄 실현 (Recapitulatio)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함께 있어 주는 것일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답을 없겠습니다만 부모가 아이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갖는 것만큼 좋은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있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도 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에 이어 강생(잉태와 탄생)과 파스카(수난, 십자가에 달리심, 돌아가심, 묻히심, 저승에 가심, 부활, 승천)의 신비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강생과 파스카 사이, 그러니까 3년간의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고백하지 않으며, 공생활 3년의 10배에 달하는 나자렛에서의 긴 시간들은 복음서조차도 우리에게 그 내용을 거의 전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요한 20,31 참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서 생략하는 예수님의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 전체는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인간의 모든 삶에 함께하셨던 시간들입니다.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의 시간, 부모에게 순종하는 평범한 한 아이의 시간, 마을의 평범한 청년으로 사람들과 어울린 시간, 목수라는 노동자의 시간부터 시작하여 가난한 이들, 병자들,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함께하셨던 시간, 반대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했던 논쟁의 시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하시고 죽음까지도 함께 경험하신 모든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자 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 곧 그분의 말씀과 행동, 침묵과 고통, 존재와 표현 방식 전부는 성부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 입니다. 그분이 지상에서 우리가 함께하였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16항). 또한 그분의 전 생애는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강생은 스스로 가난해지시어 그 가난으로 우리를 오히려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분의 숨겨진 유년기와 청년기는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보상하는 것이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듣는 이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치유와 구마로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17항).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우리는 **'총괄 실현'**(recapitulatio)의 신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심으로써 자신 안에서 **인간 역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실현**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로 인하여 그분의 강생 이전을 포함하여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인류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인생의 온갖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220~245쪽, 512~570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교구 소식

성모님께 드리는 손편지

글/ 청소년국

지난 5월 성모성월,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주일을 맞아 춘천 교구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모님께 손편지 쓰기"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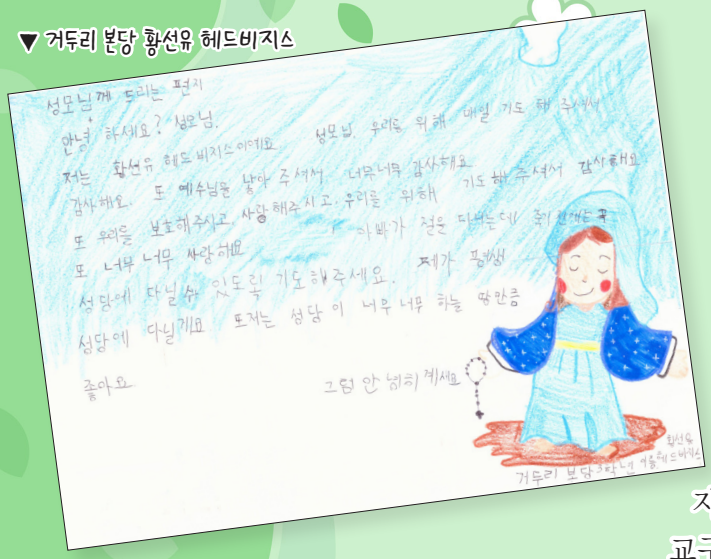
이벤트에 111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성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어린이들 편지 가운데 몇 개를 교구 신자분들께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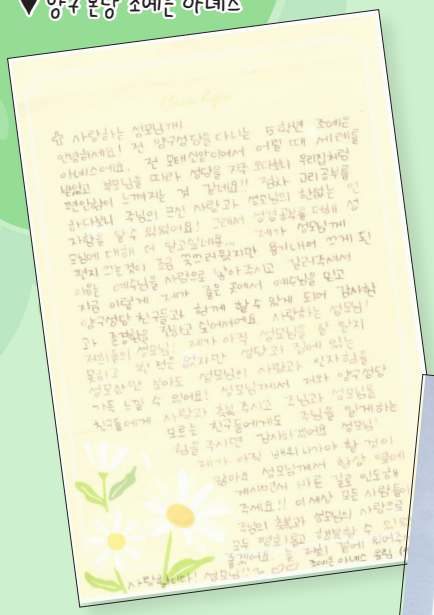
QR코드를 찍어 손편지를 확인해 보세요.

교구 홈페이지 교구소식 게시판 또는
QR코드로 손편지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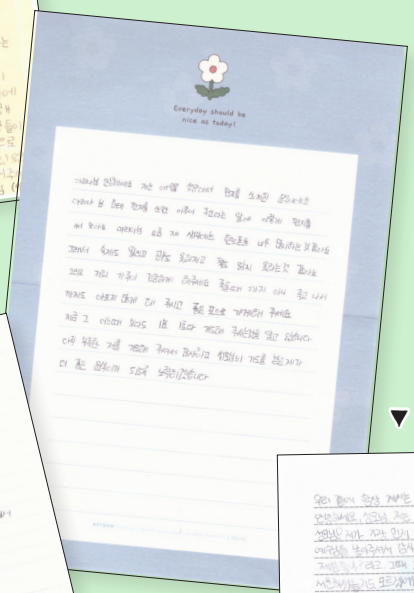
▼ 거두리 본당 황선유 헤드비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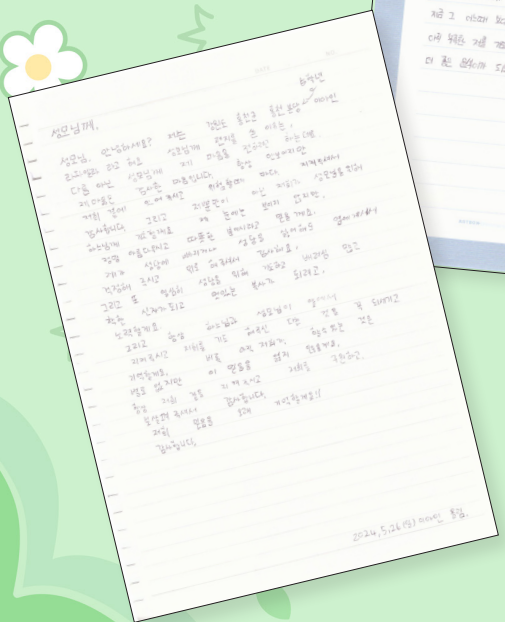


▼ 양구 본당 조예은 아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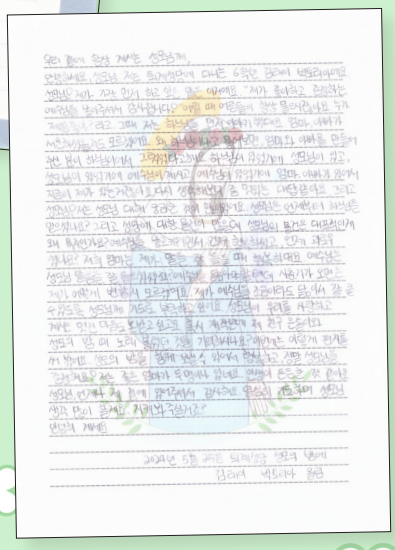
애막골 본당 김윤석 도미니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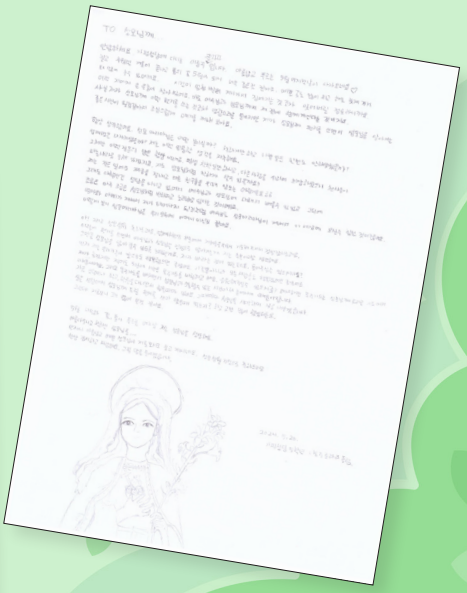




홍천 본당 이아인 라파엘라 ▲

▼ 퇴계 본당 김래이 빅토리아





가평 본당 이승주 글라라 ▲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교구 성직자 추념의 날
10. 9.(수)

봉평 본당 사목 방문
10. 18.(금)~20.(주일)

봉평 본당 10주년 미사
10. 19.(토)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0. 6.(주일) **브루노**
박훈민 신부

10. 9.(수) **디오니시오**
안상용·안효철 신부

천신기 요한 세례자 신부 21주기

생년월일 : 1934. 8. 7.
서 품 일 : 1961. 3. 18.
선 종 일 : 2003. 10. 6.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 74주기

생년월일 : 1909. 6. 9.
서 품 일 : 1936. 3. 28.
선 종 일 : 1950. 10. 9.

겟세마니 가을 동산 음악 피정
11. 1.(금) 18:30, 겟세마니 피정의 집
출연: 메타노이아(김정식 로제리오, 테너 송봉섭) 등
참가비: 없음, 자유롭게 후원 가능합니다!
준비물: 겨울 점퍼, 무릎 담요

대입 수능 수험생 부모를 위한 피정
11. 9.(토)~10.(주일) 겟세마니 피정의 집
접수: 10. 24.(목)까지 선착순 20명, 7만원
☎ 033-461-4243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레지아 월례회의
10. 6.(주일) 14시, 말딩 회관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10. 8.(화) 14시, 사회복지회관 강당

제16회 티모테오 도보순례
10. 9.(수) 9:30, 양양 성당 출발

춘천교구 ME 40주년 가족 모임
10. 12.(토) 9:30, 가톨릭회관

꾸르실료 월례회의
10. 12.(토) 11시, 말딩회관

신학생 부모 기도 모임
10. 12.(토) 14시, 성소국

10월 카나 혼인 강좌
10. 19.(토) 18:30, 입암 성당,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교육
10. 13.(주일) 14~17시, 교구청 대회의실
대상: 현 그룹봉사자와 그룹봉사를 희망하는자
준비물: 도서 'YOUCAT', 미사 준비
(주일 미사 있습니다)
☎ 033-240-6076 춘천청년성서모임 담당

성령쇄신 금요기도회
10. 11.(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최봉근 디도 선교사(전국)
미사: 19:30,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10. 13.(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춘천교구 군종후원회 회원 모집
군인들에게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활기를!
창립미사: 10. 13.(주일) 10:30, 효자동 성당
지도신부: 현광섭 프란치스코 신부(효자동성당)
후원방법: 다음카페 '천주교춘천교구군종후원회' 가입 ▶ 가입신청서 다운받아 가입 및 후원신청
자세한 사항은 다음카페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겟세마니 피정의 집 여성 관리장 채용
업무: 객실 관리 및 약간의 컴퓨터 업무
자격: 40~65세 여성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제출처: 인제군 남면 빙어마을길 196 겟세마니 피정의 집/마감: 10. 10.(목) 면접일자 추후 알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자매님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033-461-4243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10. 8.(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10. 12.(토) 10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신입 회원 접수 가능
☎ 010-3669-2076

가톨릭회관 미사 안내
평일 미사: 월·화·목 8:30, 수 19:30
주일 미사: 17시 / 미사는 회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사 전례와 반주 봉사자 모집합니다. ☎ 033-245-7300

춘천교구 가톨릭 전례합창단 노부스깐뚜스 단원 모집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 010-6380-3855

성소모임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야만 합니다.

본 당 알 림

제27회 춘천국제고음악제
10. 9.(수) 19:30, 퇴계성당
프로그램: 거트카페 서울
<옛음악의 새로운 아름다움>
폐막식: 10. 11.(금) 19:30, 춘천문화예술회관

주교좌 죽림동 성당 상설 고해소
매 (목) 14:00~17:30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인 준 시 설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직원 모집
조리원 1명, 작업지도원 1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가능)
필요서류: cafe.daum.net/fvjhouse 에서 확인, kkotjs111@hanmail.net로 제출
☎ 031-589-0210 가평꽃동네 환희의집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조리원 1명, 생활재활교사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 -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성골롬반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hanmail.net
☎ 033-262-0935~6 팩스 262-0937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일 반 알 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말연시 피정 접수중)
자연순례: 10. 23.~25./11. 1.~3./11. 7.~9./11. 11.~13.
추자도포함: 11. 16.~19./11. 25.~28./4. 5.~8.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연말연시피정(한라산눈꽃산행): 12. 30.~1. 2.
성지순례(추자도포함): 11. 24.~27./12. 1.~4.
☎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0. 19.~20. / 11. 2.~3.
3박 4일: 10. 24.~27. / 11. 28.~12. 1.
8박 9일: 10. 7.~15. / 11. 14.~22.
40일: 12. 14.~25. 1. 22.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010-4906-5722, 031-953-6932 신청

◈ 가톨릭춘천신협 ◈
가톨릭춘천신협은 비영리기업으로
조합 수익은 교구 및 지역사회 후원과
조합원을 위한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본점: 춘천시 약사고개길 21
(죽림동성당 말딩회관 1층)
※지점: 춘천시 춘천순환로 136
(거두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건너편)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 033-255-6742
지점 033-262-6742

착한목자수녀회"잠시멈춤"청년기도모임
10. 21.(월) 19:30, 한삶의 집 1층(거두리)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010-7197-1390 카톡채널 착한목자수녀회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5년 3. 30. / 599만원(+2100유로) 예정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라파엘 성지순례 02-778-8565
1. 6.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 라파엘 특선 동반자 100만원 할인 / (1. 17./2. 14./3. 14.) 시칠리아 몰타 10일 / (1. 15./2. 11./3. 11.) 포르투갈 파티마 일주 9일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12. 3.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 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45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10. 11.(금)~13.(주일)
성경완독: 11. 1.(금)~9.(토)/12. 6.(금)~14.(토)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 18.~11. 21. 일본(홍성남 신부 지도) 145만원
12. 27.~1. 7. 2025년 희년 이탈리아 560만원
1. 3.~1. 14.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1. 7.~1. 13. 스페인 남부 375만원
1. 13.~1. 24. 성모발현지 피정 순례 475만원
☎ 02-2281-9070 www.cttour.org 문의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속초 나드리 여행사
일본 히또리, 상고또, 나가사키 10/28 날짜확정 4박 5일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이보람 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705-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 · 홍승후 젬마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목살, 생선 모듬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 · 이봉자 벨라뎃다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 이은경 테오도라